

<제1회 성천상 수상자 : 전진·상의원 배현정 원장>

東亞日報

2013년 07월 16일 화요일 A27면 투데이

40여년간 39만명 무료 진료 브라쉴르 원장, 성천상 수상

벨기에 출신 마리 헬렌 브라쉴르(한국명 배현정·67·사진) 전진상의원 원장이 제1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의 창업자인 고(故) 이기석 사장의 선공후사 정신을 기리고 참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제정했다.

브라쉴르 원장은 40여 년 동안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저소득층 39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첫 수상자가 됐다. 상금은 1억 원.

브라쉴르 원장이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것은 1972년. 고향 벨기에에서 간호대를 졸업하고 국제가톨릭형제회 단원 신분으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제안으로



1975년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인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설립했다. 간호사로 의료봉사에 한계를 느껴 1981년 중앙대 의대에 편입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무료 진료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1999년에는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심사를 총괄한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가천대 의대 명예총장)은 "이기석 사장은 1959년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액제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의약품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했다. 브라쉴르 원장은 그런 이 사장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참 의료인"이라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8월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국일보

2013년 07월 16일 화요일 A22면 사람들

판자촌에 무료진료소 40년 '시흥동 슈바이처'

'성천상' 1회 수상자 벨기에 출신 배현정 원장

시흥에 '전진상' 세워 인술 베풀며 장학금도

제약회사인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이 제정한 제1회 성천상 수상자로 벨기에 출신의 배현정(본명 마리 헬렌 브라쉴르·67) 전진상의원 원장이 선정됐다고 재단 측이 15일 발표했다.

재단 측은 "배 원장이 고국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서 40여년간 무료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소외 계층에게 인술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벨기에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배 원

장은 1972년 봉사단체인 국제가톨릭형제회 단원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게 지금껏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게 된 계기가 됐다.

그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추천으로 75년 서울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진료소인 '전진상(全眞常) 가정복지센터'를 세우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간호사로서 진료소 운영에 한계를 느낀 배 원장은 81년 국내 의대에 편입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진료와 호스피스 활동으로 형편이 어려운 39만 여명에게 인술을 베풀었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성낙(가천의과대학 명예총장) 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배 원장이 자신

의 평생을 바쳐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돌본 점이 성천 이기석 사장의 '선공후사' (先公後私)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단은 다음달 2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천상 시상식을 열어 배 원장에게 상패와 상금 1억원을 수여한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 성천 이기석 사장의 선공후사 정신을 기려 사회적인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했다. 성천은 1945년 조선중외제약소(현 JW중외제약)를 창업한 뒤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면 이윤이 박하더라도 생산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59년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액제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치료의약품 산업의 초석을 다진 1세대 제약인이다. 연합뉴스



'시흥동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 제1회 성천상 수상자로 결정된 그는 "의료 봉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중외학술복지재단 제공

<제2회 성천상 수상자 :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

중앙일보

2014년 07월 15일 화요일 022면 사회

한센인 아랫입술 재건 수술법 만든 소록도 천사

<국립소록도병원 치과의>

오동찬씨, JW중외그룹 성천상

오동찬(46·사진)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치과 전문의)은 조선대 치과대학 졸업후 1995년 공중보건의로 국립소록도병원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말기암 환자였던 어머니의 만류에도 “1년만 봉사하고 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약속했던 1년이 지금까지 이어져 지난 20년간 1600여 명의 한센인을 치료했다.

그는 특히 한센병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직접 ‘아랫입술 재건 수술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다. 오 부장은 “슈바이처 같은 의사를 꿈꾸며 치과대학에 진학했었다”며 “아랫입술이 처져 음식을 씹지 못하는 환자들을 그냥 두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씹지 못하고, 양치질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며 입술 성형수술을 연구했다. 한



센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라 참고할 교과서도 연구논문도 없었다. 홀로 공부해 국내 최초로 입술 성형수술 방법을 개발했고, 400여 명의 한센인에게 입술을 되찾아 줬다.

오 부장은 2005년부터는 해외의 한센병 환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매년 여름 휴가 때마다 캄보디아·몽골·필리핀 등 한센병 환자가 많은 국가를 찾아 봉사 활동을 펼치는 그는 “한센병 환자들에게서 내가 배우고, 받은 게 많다”고 말했다.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오 부장을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이기석 사장의 뜻을 기려 음지에서 헌신적인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는 의료인에게 주는 상이다. 상금은 1억원이며, 시상식은 다음 달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박수련 기자

africasun@joongang.co.kr

朝鮮日報

2014년 07월 15일 화요일 A27면 사람들

한센인 소록도에서 ‘나홀로 의사’ 12년

소록도병원 오동찬 부장 ‘성천賞’

조선대 치대를 막 졸업한 젊은 의사가 1995년 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에 공중보건의로 지원했다. 난소암 말기이던 어머니가 극구 만류했지만, 아들은 “딱 1년만 근무하고 오겠다”고 했다.

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20년째 국립소록도병원을 지켜온 오동찬(46) 의료부장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중외그룹 회장)은 제2회 성천상 수상자로 오동찬 부장을 선정했다. 성천상은 JW



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석 사장을 기려 지난해 제정됐다.

“공중보건의 1년 근무가 끝나도 집으로 가지 않

으니까 어머니가 소록도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엄마 대하듯 환자를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소록도를 다녀간 두 달 뒤 세상을 떠났다.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소록도병원에 그 말고는 다른 의사가 없었다. 치과의사인 그가 내과와 외과 치료도 맡았었다. 이영완 기자

<제3회 성천상 수상자 :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조병국 명예원장>

東亞日報

2015년 07월 14일 화요일 A24면 투데이

반백년 6만여명 돌본 '고아들의 의사'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병원 명예원장 '성천상' 수상

JW중외그룹은 50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고아를 보살펴 온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82·사진)을 '제3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천상은 고이식 중외그룹 창업자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JW중외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한 의료인에게 주는 상이다.

1958년 연세대 의과대를 졸업한 조 명예원장은 1962년부터 15년간 서울시립아동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며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으



로 자리를 옮겨 6만여 명의 입양 예정 고아들의 건강을 챙겼다. 그는 아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 예방접종을 하는 등 아이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수상 소식을 전달받은 조 명예원장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어느새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8월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朝鮮日報

2015년 07월 14일 화요일 A23면 사람들

50년간 6만명 돌본 '입양아의 주치의'



'성천賞' 받는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조병국 명예원장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치료하고 수술해야 하는데 1960~70년대 우리나라에는 돈이 없었다. 젊은 여의사는 미국·독일·노르웨이에서 의료 기부를 받았다고 백방으로 돌아다녔다. 해외 기부자들에게 얼마나 매달렸는지 '국제 거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래도 아이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의 사망진단서를 하루에도 몇 장씩 써야 하던 시절이다.

'한국 입양아의 주치의'로 불리는 조병국(82·사진)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이 13일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중외그룹 회장)이 주는 제3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 명예원장은 50여년 동안 새 부모를 찾아가는 입양아 6만여명을 치료했다. 성천상은 JW중외그룹 창업자인 고(故) 성천 이기식 사장을 기려 2013년 제정됐다.

1958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조병국은 1962년부터 15년 동안 서울시립아동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면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1976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고 부속의원에서 입양아들의 치료에 헌신했다. 1993년 정년 퇴임했지만 후임자들이 격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자 다시 돌아와 2008년까지 15년 동안 '전(前)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진료했다.

그는 "세상을 뜬 아이에게 제대로 된 수의(壽衣)도 입히지 못하고 장호지를 대충 잘라 덮어 놓던 시절도 있었다"며 "외국에 하도 원조를 많이 요청하다 보니 정부로부터 '자제하라'는 경고까지 받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고 했다.

지원 요청 찾아 '국제거지' 별명
홀트 17년 근무 후 퇴임하고도
후임자들 못 버티자 돌아와 15년
'어엿하게 큰 아이들 보면 뿌듯'

다. 외대 동창인 남편은 그를 적극 도왔다. 아이들이 동전이나 단추를 삼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남편이 있는 한양대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런 조 명예원장도 해외 입양을 '아기 수출'이라며 무조건 비난할 때는 힘이 빠졌다. "집 없고 병든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부모와 가정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국내에 자원하는 부모가 없으니 해외로 눈을 돌렸을 뿐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입양 서류에

'~에 버려졌음' 대신 '~에서 발견됐음'이라고 기록하던 그다.

그래도 아이들은 큰 기쁨을 안겨줬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 뇌성마비 소년은 소아 재활의학 전문의가 돼 국제학회에서 그를 찾아왔다. 나중에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아이는 미국에서 의수(義手) 사업을 하는 양부모를 만나 컴퓨터 전문가로 됐다. 척추 기형으로 태어났던 가리지 못할 것이라던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 밴드의 리더가 되기도 했다. 그는 "양부모의 도움도 컸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앞길을 연 것"이라며 "지금껏 내가 한 일이 부끄럽지 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고 했다.

조 명예원장은 팔순 고령인 지금도 홀트 입산복지타운에서 장애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장애아 심해 입양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마리 홀트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도 돌보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창립자인 해리 홀트의 딸이다.

"할머니와 같이 살아보셨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는 생활 그대로예요. 아이들 이부자리 정리하고, 아프면 봐주고 그렇게 살아요." 중외학술복지재단은 다음달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천상 시상식을 갖는다.

이영환 과학전문기자

<제4회 성천상 수상자 : 여수애양병원 김인권 명예원장>

중양보

2016년 08월 05일 금요일 023면 사설/칼럼



채인택의 직격 인터뷰 한센병 33년 헌신... 성천상 받는 김인권 명예원장
(여수애양병원)

“꿈꿨던 의사상 살아 있기에 주저 없이 한센병원을 택했다”

전남 순천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17번 국도를 달리다 여수공항 뒤로 가면 여수애양병원이 나타난다. 남도의 외진 곳에 위치했지만 정형외과와 피부과로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병원이다. 이 병원의 김인권(65) 명예원장이 최근 제4회 성천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JW중외그룹의 창업자인 고 성천 이기석 사장의 생명 존중 정신을 기려 음지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감각이 된 의료인을 발굴해 주는 상이다. 김 명예원장은 이 병원에서 한센병 환자의 사지교정 수술과 소아마비 환자의 재건·재활 치료에 헌신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전문의인 그는 1980~83년 소록도에서 공중보건으로 일한 뒤 83년 이 병원에 부임해 평생 환자를 돌봤다. 한센병 환자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던 청년 의사는 이제 백발의 신사가 돼 취직진을 맞았다.



한센병·소아마비 환자와 장애인 치료해 온 여수애양병원 김인권 원장이 병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병원이 선교사들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헌신, 의학 지식을 제3세계에 전수할 꿈을 꾸고 있다. 광주·프리랜서 오종찬

~성천상 수상자로 뽑힌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가 직장이고 이게 직업입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이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앞서 이곳에서 일하셨던 의사·선교사들이 닦아놓은 터가 좋은 것이지 저 자신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서 근무했던 선교사 분들이 어떤 터를 닦아놓았습니까.

“이 병원은 바탕이 건전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웠기 때문이지요. 1909년 미국 남장로교에서 조선에 파송한 의사 선교사 윌리 포사이스 박사가 길에 쓰러진 환자를 처음 치료했습니다. 이를 기려 다른 의사 선교사인 R.M. 윌슨 박사가 같은 해 한센병 환자 전문 치료 병원으로 세운 광주나병원이 기원입니다. 1926년 현재 위치로 옮겼고 67년 의사 선교사인 스탠리 토클 박사가 소아마비 유증 환자를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수술을 위한 진료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때는 건 강보험도 없었으니가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을 저렴한 가격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런 방침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런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인공관절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4년간 한걸음 걸으신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도 이제 제가 주전마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일하다 보면 요새 말하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나 뭐 이런 것은 비교적 적습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에 생각했던 의사상, 학교에서 배웠던 의사상, 마음속으로 꿈꿨던 의사상이 그대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거워도 바쁠 수 없는 보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계속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의사 시절 한센병 환자를 위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의대에 다니면서도 한센병 환자를 볼 적도, 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당시 전공의 4년 중 6개월을 무의

존에서 진료해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연히 소록도에 가게 됐습니다. 77년 10월이었는데 그때 처음 한센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대하려고 했더니 얼굴이 아니라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친해졌고 병이 무섭지도 않았습니 다. 소록도에서 여러 의사를 만났는데 그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의사와 많이 달랐어요. 조금 더 인간미가 넘치고 조금 더 환자를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환자를 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소통하는 그런 의사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과 마음이 통하면서 이곳으로 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소록도에서 특별히 할 일이 많았나요.

“한센병에 걸리면 나중에 손가락이 구부

~그래서 민간 한센병 진료기관인 여수애양병원으로 가게 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신성식 원장님과 마음이 완전히 맞았어요. 당시 한국은 의료가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병원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80년 소록도에 가니 사방에서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여수애양병원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한센병 환자와 일반 환자를 함께 보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한센병 환자는 치료 가 아주 단조로운데 저는 한센병 환자도 보면서 정형외과 의사로서 다양한 진료도 하고 싶었어요. 여수애양병원이 딱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당시 대학병원이나 대형 일반 병원의 선배들이 오라고 했는데 저는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도저히 한센병 환자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수애양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사지재건수술을 하다가 소아마비 환자와 장애인 치료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서서히 줄고 있기 때문이지요. 소록도에는 제가 83년 근무 할 때 한센병 환자가 3500명 있었는데 지금 530명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배경입니다. 전남 동부의 한센병 환자는 저희 병원이 담당하는데 이전 환자 600명만 유지될 뿐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지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 다.”

~애양원이 원래 소아마비 환자를 많이 보는

결과 유명했다고 하던데요.

“스탠리 토클이었던 정형외과 의사가 여수 애양병원에 59년 부임해 81년까지 근무하고 65년에 가서 78년까지 원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분의 의술과 노력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많이 내원했습니다. 그분은 치료는 물론 의복 제작과 보급, 그리고 환자 재활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전공의 시절 소아마비로 유명했던 이덕영 교수님으로부터 소아마비에 대해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과 토클 원장으로부터 배운 것을 종합해 나름의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환자들도 아주 좋아했고요. 소아마비 환자를 보면서 한센병 환자를 볼 때 만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체 80년대 이후 인공관절수술 분야를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사실 우리 병원 인공관절수술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오래했습니다. 73년

부터 했으니 거의 선두주자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전공의를 하던 75~80년 이를 처음 접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수술비가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집 한 채 값이죠. 당시 어떤 유지의 가족분이 양쪽 무릎 수술을 하고 10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를 부담할 수 있는 환자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78년 이 병원에 와서 보니 수술비로 5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가 이뤄지고 있었습니 다.”

~그렇게 쓴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더니 당시 여기 선교사들이 홍콩에서 제료를 ‘직구(직접 구매)’하더군요. 인공관절은 물론 수술 도구도 모두 직접 구매하면서 비용을 아꼈습니다. 당시 이곳에 살던 의사 선교사들이 검소하게 생활한 것도 작용을 했

료계의 평입니다.

“사실 그런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많은 수술 실적을 쌓았습니다. 외과의사로서 실력은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술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는 실적이냐 자랑할 때가 지났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이 노하우를 의학교육이 필요한 다른 나라에 전수해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등에 이 노하우를 전수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곳 의료진을 한국에 데려와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합니다. 수술도구와 재료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과거 우리가 파견 선교사나 이들을 지원한 미국 내 단체들에서 받았던 것을 필요한 다른 곳에 돌려주는 작업입니다. 이제는 그런 작업에 무게를 실어야 할 때입니다. 물질적으로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서 받았던 핵심이 바로 사랑이었으니까요.”

~지난 3월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 후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정형외과 의사인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3세계의 지역과 병원을 아주 많이 봤습니 다. 그중 한 곳에서 환자를 돌보고 의사를 가르치거나, 그런 일을 조직적으로 하는 단체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은퇴 뒤에도 명예원장으로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사를 뽑을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일단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병원 직원이 말을 거들었다. “원장님을 찾는 환자가 하도 많아서 아떨 수 문이 나 환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치료받은 환자들이 주변에 말을 잘해 주니까 소문이 확 나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의사의 헌신과 인도주의적인 도움이 합쳐져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인공 관절 수술과 고관절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 된 지 10년 이상 됩니다. 병원 뒤에 저희 역사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는 수술에 사용했던 도구와 인공관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학의 역사가 아니라 봉사자와 헌신의 역사죠.”

~의학기술성으로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의

의학기술성으로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의

“사실 제가 쓰고 싶은 데가 많이 있지만요. 사용처는 짐사방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 봐요. 보람 있는 곳 중에서 돈이 필요한 곳에 쓰고 싶습니다. 꼭 들고 싶은 거는 한 학살단체가 하나 있고요. 우리 의과대학에 도 좀 내고 싶어요. 우리 은사님 중 어려우신 분께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짐사방에 거둬가겠습니다. 평생 나를 그렇게 도왔으니까요.”

는설위원

100년 전 선교사가 세운 한센병원 한국인 의사가 맥 이어 33년 근무 재건수술 하다 소아마비 재활까지 이젠 최대 인공관절병원으로 키워

러져 제대로 쓰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구부러진 것을 펴주는 수술이 개발돼 시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미안 재단이 서 보낸 의료진이 이를 처음 시술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한센병 환자를 돕다가 자신도 그 병에 걸려 돌아간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신부를 기리는 단체죠. 그 재단에서 63년 소록도에 보낸 의사와 간호사 3명이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귀국하면서 10여 년간 수술의 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과 함께 일했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들을 모아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소록도의 슈바이처’로 불리던 소아마비에 대해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과 토클 원장으로부터 배운 것을 종합해 나름의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환자들도 아주 좋아했고요. 소아마비 환자를 보면서 한센병 환자를 볼 때 만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체 80년대 이후 인공관절수술 분야를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사실 우리 병원 인공관절수술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오래했습니다. 73년

전공의 시절 소록도 무의촌 진료 중 인간미 넘치는 의사 보고 진료 결심 소아마비·인공관절로 영역 넓혀와 받은 봉사·지식 이젠 제3세계 이전

을 겁니다.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좋은 인공관절 수술 기구를 쓰고 싶어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 내면 도구는 물론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의사까지 보내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85년에는 닥터 윌링엄이라는 사람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이곳까지 와서 인공관절수술 현장을 보여 주면서 주변에 상당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쓴값에 좋은 기구를 사용해 뛰어난 기술로 수술한다고 소문이 나 환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치료받은 환자들이 주변에 말을 잘해 주니까 소문이 확 나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의사의 헌신과 인도주의적인 도움이 합쳐져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인공 관절 수술과 고관절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 된 지 10년 이상 됩니다. 병원 뒤에 저희 역사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는 수술에 사용했던 도구와 인공관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학의 역사가 아니라 봉사자와 헌신의 역사죠.”

~의학기술성으로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의

“사실 제가 쓰고 싶은 데가 많이 있지만요. 사용처는 짐사방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 봐요. 보람 있는 곳 중에서 돈이 필요한 곳에 쓰고 싶습니다. 꼭 들고 싶은 거는 한 학살단체가 하나 있고요. 우리 의과대학에 도 좀 내고 싶어요. 우리 은사님 중 어려우신 분께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짐사방에 거둬가겠습니다. 평생 나를 그렇게 도왔으니까요.”

는설위원

<제5회 성천상 수상자 :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 한원주 내과과장>

이제일

2017년 07월 11일 화요일 024면

'성천상' 수상... 구순 현역 의사 한원주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 과장

“아흔 넘어도 의료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

“아흔이 넘어서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다시 태어나도 의료봉사를 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반차에 만족합니다.”

구순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성천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제5회 성천상 수상자로 한원주(91)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 내과과장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원주 과장은 1949년 경상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수련을 한 뒤 1968년에 서울 동대문구에 개원의원을 열었다.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개인의 삶이지만 평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봉사에 관심이 많았다. 1979년에는 아예 병원 문을 닫고 한국 기독교의료선교회에 부설 의료선교의원에 취임하면서 전문적인 의료봉사에 나섰다. 그는 2008년까지 28년간 봉사를 전업으로 삼아 영세민,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돌봤다. 한 과장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한 과장의 아버지 역시 의사였

매일 10시간씩 노인 건강 관리
아예 병원 한쪽에 잠자리 마련
금요일까지 일한 뒤 일요일 복귀
“의사 소임했음뿐...상받아 기쁨”

성천상

JW중외제약의 창립자인 고(故) 성천 이거여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음자에 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의료복지증진에 기여하면서 사회적인 귀감이 되는 참 모교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



다. 그는 일제시대인 1933년 경남 마산에서 병상을 폐결핵 퇴치와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열었다. 이후에는 노후 자금만 남기고 병원을 모두 정리해 사회에 환원했다.

한 과장이 의료봉사에 열정을 매달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이었다. 한 과장은 “1978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재물, 명예, 지위 등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우울에 빠졌다”며 “그러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보고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순히 질병만 돌본 것은 아니었다.

한 과장은 1982년 국내 최초로 환자의 정서나 환경까지 치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전인(全人) 치유진료소’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의료제택뿐 아니라 생활비나 장학금을 지원해 자립을 도왔다. 의료봉사의 개념을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자립과 재활로 넓힌 것이다.

한 과장은 82세이던 2008년 의료선교의원에서 은퇴한 후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시 청진기를 들었다. 지금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요양원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한다. 아예 병원 한 구석에 수소를 마련해 금요일까지 일 한 뒤 복귀했다. 일요일 밤에 병원으로 돌아온다.

이성나 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한원주 과장은 개인의 명단을 뒤로한 채 불우한 이웃에 온전한 삶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인성을 베풀어왔다는 점에 성천 이거여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원주 내과과장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kkkong@

충청일보

2017년 07월 11일 화요일 024면

“노인 환자들이 희망 잃지 않게” 청진기 든 91세 ‘수호천사’

최고령 의사 한원주 선생

요양병원서 매일 8시간씩 진료

“노인 환자를 외로움 마음 더 문제”

초의계종 돌보는 의료봉사 활동

중외재단서 수여 ‘성천상’ 받아

경기도 남양주시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의사 한원주(91) 선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자들을 진료한다.

현역 최고령 의사인 그는 매주 일요일 저녁 병원으로 출근해 일주일 환자들과 함께 보낸다. 평일에는 병원에서 생활하고 금요일 오후 진료를 마친 뒤 서울 자택으로 퇴근하는 식이다. 한씨는 직접 컴퓨터로 전자 처방에 병명을 기록하고 약을 처방한다. 한씨보다 나이가 많은 환자도 있지만 대개는 그보다 어리다.

박재은 간호부장은 한씨에 대해 “나이가 많지만 진료로 진료에 열의가 넘치고 건강하다”며 “노년 환자를 예뻐하고 겸손하게 대해 모든 병원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한씨가 JW중외제약의 공익 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에 수여하는 제5회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JW중외제약의 창립자인 고(故) 성천 이거여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음자에 서 헌신적인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는 의료인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26년 경남 전주에서 태어난 한씨는 1949년 고려대 의대 전신인 경상여자의학



한원주 선생(왼쪽)이 경기 남양주시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에서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중외재단]

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고려대에서 내과 박사 학위를 딴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학문적 열의도 강했다.

귀국 후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한씨는 70년 병원을 정리하고 한국기독교의료선교회 부설 의료선교의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의사로서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줬다고 결심한 것은 직

교한 부원 때문이었다.

한씨는 본지와 의 통화에서 “의사였던 아버지께서 의료 봉사가 흔치 않은 40년 전에도 나 홀로 의료 봉사에 매진하는 것을 보고 나도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2008년 82세의 나이로 의료선교의원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재취업’했다. 여성은 노인요양

원에서 어르신 환자들을 돌보아줬다고 결심한 것이다.

“노인 환자들도 소외계층에 속해야 해요.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환자들과 외로운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일일이 보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임종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에 대한 섭섭함 등 노인 환자들이 겪어야 할 슬픈 문제들을 주위에서 모두 해결해줄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또 일한다고 하니 가족들이 멀리하지 않아요”는 질문에 그는 “내 소신으로 하는 일인데 가족들이 멀리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한씨의 아들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로, 그의 사위 역시 수도 권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그는 “사위가 원장인 병원에 가지 않은 것도 내 고집”이라며 웃었다.

그가 위세라는 나이로 39년째 진료한 볼 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 덕분이다. 한씨는 진료가 끝난 뒤 매일 한 시간씩 병원 주변을 산책한다. 신문 볼 때도 능숙하다. e메일이 오면 직접 회신하고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계정도 갖고 있다. 저녁 10시30분까지는 책을 읽고 매일밤 11시에 잠든다고 한다.

그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의사로서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며 “노인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환자들 곁에 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5회 성천상 시상식’은 다음달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